

상가 에어컨 실외기 짜증 바람...주민들 열받았다

“열기 올라와 못살겠다” 아파트 389세대 실외기 이전 민원 도시가스 배관 인접해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도

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아파트 상가 뒷길. 다닥다닥 붙어있는 수십여 대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내는 열기가 후끈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2도.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 열기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훨씬 더했다. 이 상가 건물은 실외기 22대를 20~30cm 간격으로 3단계로 나눠 층층이 모여 있는 22대 실외기 위로는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고 있었다. 상가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곳에서 2m 가량 떨어진 아파트 외벽 창문은 무더

위에도 굳게 닫혀 있었다. 주민들은 “실외기 열기가 집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와 창문을 열면 더 답다”고 하소연했다. 실외기 옆에는 담배꽂초도 쉽게 불 수 있었다. 아파트 입주민 389세대가 광주시 북구청에 해당 아파트 상가에 설치된 실외기를 이전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넣은 이유다. 주민들은 장시간 에어컨 가동으로 실외기 모터가 달아오른 상황에서 자칫 누수가 버린 담배꽂초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 배관과도 인접해 있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5일 광주시 5개 구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에어컨 실외기 관련, 접수된 민원은 모두 74건에 이른다. 지난해도 122건이 접수될 정도로 여름철 실외기 소음·열기·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시민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관련 화재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광양시 광양읍 A통신사 건물 2층의 노후화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등 올해 14건의 실외기 화재가 났다. 2013년(21건), 2012년(27건) 등도 실외기 화재가 잇따랐다. 뜨겁게 달아오른 실외기에 무심코 담배꽂초를 버렸다가 실외기 내부 인화 물질과 반응하거나 합

선 등으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반면, 관리는 부실하고 자치단체의 단속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상가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대부분 먼지투성일 정도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담배꽂초도 아무렇지 않게 버려지면서 화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를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 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지만 하면 되는 탓에 단속에 나설 수도 없다. 또 단속 인력도 없는 데다, 경기침체로 인한 상인들의 형편을 감안하면 위반한 상인들에 대해 무작정 단속

의 잦아들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상가 실외기 뿐 아니다. 관리 부실로 인한 화재 위험·도심 미관 등을 감안,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발코니 안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안 시행 전 건설된 아파트는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많다. 광주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먼지나 이물질이 끼기 쉽고 실외기 과열의 원인이 돼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희기자 gilee@kwangju.co.kr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이성환 경찰청장 사의 검찰 문책론 확산 여부 관심

이성환 경찰청장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호사 수사 미흡과 관련, 책임을 지고 5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병언 회장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을 질책하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질책한 뒤 나온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성환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과 함께 실질적으로 유병언 회장 수사를 총괄한 검찰 문책론도 확산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안전행정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경찰청에서 “제 소임이 여기 정도인 것 같다. 여러 가지 경찰이 책임질 문제가 많아 청장인 제가 끌어안고 떠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있었던 잘못은 제가 안고 가겠지만, 국가와 국민이 있는 한 경찰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앞선 과오는 제게 다 덮어주시고 남아 있는 경찰관들이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경찰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월호 수중수색 재개

제12호 태풍 ‘나크리’ 북상으로 중단된 세월호 수중수색이 일주일 만에 재개됐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태풍의 영향으로 목표항으로 피항한 바지선 2척이 5일 오전 3시, 오전 7시 각각 사고 해역에 도착, 수색 준비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바지선 고장과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사고대책본부는 구조팀 125명을 투입, 3층 중앙 로비, 선미 선원실, 4층 선수 객실,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선원실을 집중 수색할 계획이다. /진도=박형영기자 hy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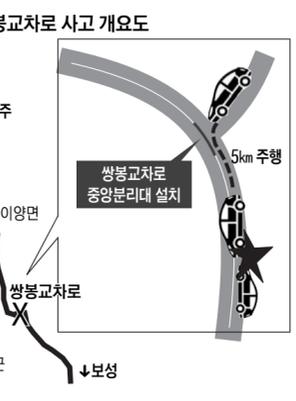
아내 불륜 의심 남편 갖길 추돌사고

○...부인의 불륜을 의심하고 차량을 타고 미행에 나선 50대 남성이 자신의 부인이 외간 남성의 차량에 탑승한 장면을 목격하고 격분, 고의로 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서형. ○...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장모(53)씨는 이날 새벽 1시5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자신의 부인이 생면부지의 남성인 최모(46)씨가 몰던 차량의 보조석에 나란히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을 삭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버렸다는 것. ○...장씨는 뒤이어 인근 상가 앞에 주차 중이던 권모(43)씨의 차량과도 접촉사고를 냈는데,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장씨는 “아내와 함께 있는 남성의 차량을 뒤따라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진술. /백희준 수습기자 bhj@

‘공포의 교차로’ 역주행 사고 승용차 정면 충돌 3명 사망

화순~보성 국도 29호선 쌍봉교차로서 또 대형사고

폐쇄된 ‘공포의 교차로’로 진입한 역주행 차량때문에 또 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 3명이 숨졌다. 1년 간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도로에서 또 다시 5km를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 ‘마의 도로’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형 사고가 잇따라 신호등이 철거되고 교차로가 폐쇄된 구간에서 역주행 사고마저 발생, 중대한 진입금지 안내판 설치 등 국토관리사무소와 경찰의 교통 대책이 미흡했던 것이 아나나는 지적도 거세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5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0시45분께 보성군 노동면 녹차터널에서 광주(화순) 방향으로 500m 떨어진 지점에서 주모(42)씨가 몰던 산타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엑센트 승용차(서모씨·30)와 정면 충돌했다. 이날 사고로 주씨와 엑센트 승용차에 타고 있던 서씨와 약혼녀가 현장에서 숨졌다. 이들은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제주도로 휴가를 갔다가 이날 귀가하던 길이었다. 경찰은 주씨가 쌍봉교차로 폐쇄로 보성 방면 진입이 금지됐음에도, 역주행하며 5km를 달리다 마주오던 서씨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주씨가 화순 쌍봉사 인

근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수개월동안 광양 집까지 출퇴근한 점 등을 들어 도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역주행 사고가 난 점에 주목,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주씨가 사고 당일 밤 10시 30분께 건설현장에서 쌍봉 교차로까지 나간 사실과 사고 전 보성군 예제 터널(보성)을 역주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주씨의 혈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옛 쌍봉 교차로 지점에 진입 금지를 알리는 교통시설물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홍물 의류수거함 철거

광주시 북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5일 오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의류수거함을 철거하고 있다. 북구는 160여개소의 의류수거함 디자인을 새롭게 정비하고 관리실명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군대 못보내겠다”...입대 반대·모병제 서명운동 바람

‘윤일병 사건’에 네티즌 후끈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국민 분노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당 군부대 및 육군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입대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5일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에도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5일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윤 일병 사건으로 비롯된 ‘군모병제 서명운동’이 시작돼 수백명의 서명이 진행됐다. ‘도토리’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올린 누

리꾼은 “군입대를 앞둔 청년, 그리고 자식을 둔 부모님 등 이번 윤일병 사건에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끼는 국민여러분. 이 사건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22사단 임병장 사건에 대한 연장선”이라며 육군의 고질적인 가혹행위를 비판하며 모병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모병제 뿐 아니다. 지난 2일부터 ‘YD Chung’이라는 네티즌이 ‘군대 입대 거부 운동 합시다’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현재 415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호응하고 있다.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입대를 앞둔 자식을 둔 부모의 불안감 섞인 격정

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jymoon’이라는 누리꾼은 “모병제의 실현가능성을 떠나 군대갈 자식을 둔 엄마로서 이런 소식에 무조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며 “제발 건강한 아이들을 군대보냈으면 입대 전 그대로 가족 품에 돌려 보내달라는 것이다. 이것도 너무 큰 바램이란 말인가”라고 호소했다. ‘와송바라기’라는 이름의 누리꾼은 “다음달이면 우리 아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엄마입니다”라며 “요즘 너무 걱정돼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저런 군대에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걱정했다.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

(주)오천경매 / (주)오천개발

대표, 최선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시 동구 찬변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투자 가능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2대1 또는 1대1 투자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 설정으로 보장
연 10~24% 매월 지급
투자기간은 1년 정도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